

《나타 2》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편견 버리고 개성 존중하며 혁신 장려하는 교육 리념 보여줘

2025년 음력설 연휴에 애니메이션 영화 《나타 2》가 흥행 수익 124억원을 돌파하며 영화 역사 기록을 경신하고 전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차트 1위에 올라 전진의 화제로 되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나타 2》는 신화의 껍데기로 교육의 핵심을 감싸고 가정교육의 고충과 돌파구를 제시했다. 나타의 '마법환'에서 영웅으로의 변신, 리정부부의 독특한 교육, 오병과 신평표의 성장 끈경은 함께 생생한 교육계시록을 구성했다.

● 꼬리표를 붙이지 않기, 아이에게 적합한 것이 최고

나타는 '마법환'의 환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악랄함', '위험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는 충동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결과를 용감하게 감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념의 '착한 아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태을진인과 리정부부는 나타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나타의 강점과 상황에 맞춰 그의 재능 및 능력과 결부하여 그를 수호자로 이끌고 긍정적인 행동 모식을 강화했다.

이런 '격려교육'은 나타가 점차 '과괴력'을 '보호력'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했다.

●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영화 속에서 나타와 오병이 "앞에 길이 없다면 나는 길을 만들겠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뒤집겠다."라고 웨쳤을 때 현장 관객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나타 2》는 신평표와 나타의 이중



서사를 통해 정체성, 편견, 자기구원의 주제를 탐구하였다.

신평표의 '고독하고 용감한 자'의 이미지는 전작의 복선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시각으로 전통적인 악역을 재구성하여 현대 관객의 감정 투사의 매개체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나타와 신평표의 운명이 얽히면서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의 성공 경로를 드러냈는데 즉 '과감히 도전하고 창조'하는 정신으로 숙명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낸 것이다.

마치 창업의 길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자금 부족, 치열한 시장경쟁 등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딛고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속에서 경험을 총결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듯이 말이다.

●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앞에서 서 모든 '악동'도 자신의 영웅서사를 쓸 수 있어

《나타 1》부터 《나타 2》까지 교육자로서 태을진인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개성 차이를 존중하고 사람에 맞게 교육하는 교육 리념을 고수했다.

리정부부의 이미지 형성은 이전의

영화 및 드라마 작품 속의 엄부자모의 이미지와 다르며 교육 리념의 충돌과 융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리정은 아들의 반역을 리해하기 시작했고 은부인도 지나친 사랑을 주지 않았다.

동해통왕 오광도 마침내 손을 때는 법을 배웠고 오병의 독립적인 선택을 존중했는데 이는 '모든 아이는 독특한 성장 경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현했다. 이런 전변은 현대 가정교육 관념의 진보를 반영한다.

《나타 2》의 감독 교자(餃子)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의대생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종의 '하늘을 거스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열애 때문에 그는 의학을 포기했고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를 창작했으며 한때는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천박신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고를 몇번 바꾸면서도 지칠 줄 몰랐다.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리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격려와 지지로 바뀌었다. 그의 경험을 보면 그 또한 현실의 '나타'가 아닐 수 없다.

《나타 2》의 성공은 국산 애니메이션의 부상을 의미하며 이 또한 교육철학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은 교정과 규율이 아니라 깨우침과 에너지 부여임을 알려준다. 모든 아이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생명의 암호이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거울로 삼고 사랑을 방패로 삼으며 신뢰를 검으로 삼아 사회와 함께 포용적인 성장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편견을 버리고 개성을 존중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교육 앞에서 모든 '악동'도 사랑과 리해 속에서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쓸 수 있다.

/ 중국교육보

길림성 중소학교 개학 준비 착실히

2025년 중소학교의 봄학기 개학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월 17일, 길림성교육청은 전 성 중소학교 봄학기 개학준비사업 화상회의를 조직하여 학생 체육운동, 생활 및 휴식 시간 규범, 숙제관리 최적화 등 중점 업무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심한 배치를 진행, 전 성 중소학교 개학준비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체육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새 학기에는 전 성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매일 최소 1회의 체육수업(체육활동수업 포함)을 개설하는 동시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의 긴 휴식시간 체육활동을 배치하며 쉬는 시간 15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서 최소 2시간의 체

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확보함으로써 신체소질과 심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의 생활 및 휴식에 대해 길림성교육청은 과학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수업 시작전에 학교에 오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일찍 도착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미리 문을 열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는 방과후 서비스가 끝난 후 즉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고중에서는 야간 자물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날의 학습과 생활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반복성, 처벌성, 출석 체크식의

과중한 과제 부담을 버리고 학부모들이 'PPT 제작'의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저학년 학생들이 '필사 신문'의 복잡한 임무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 전 성 각 중소학교는 숙제 관리 업무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며 즐거움이 학습의 주선물이 되게 해야 한다.

방과후 서비스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확장이다. 새 학기에 전 성 중소학교는 방과후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체육예술활동과 과학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다양한 고품질

의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학습 흥미와 창의력을 자극하여 방과후 서비스가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세계를 탐색하는 무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학교의 핵심이며 학생들이 성장하는 초석이다. 전 성 중소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방안에 따라 철저히 국가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교수 관리와 품질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교육교수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수업이 정품이고 매 한차례 학습에서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길림일보

무형문화유산으로 교정의 민족단결 씨앗 키운다

최근 연길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룝색 책갈피에 조력하고 동심으로 석류씨 함께 키우기' 무형문화유산 학교 활성화 행사가 연길시연신소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를 주된 플랫폼으로 삼아 우수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한층 더 추진하고 중화 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 교육 전반에 깊이 스며들게 하며 민족단결의 '씨앗'을 학교와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에서는 연변조선족전통음악공예문화연구회 회장이자 조선족 전통 종이공예 전승인인 김철원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교한 조선족 전통 종이공예품을 선보였으며 조선족 특색 점시의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시연했다.

조선족 전통 종이공예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깊은 역사문화적 내재성과 민족정신을 융합한 관람성·예술성·전통성을 갖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현대적 문화 상품으로서 가볍고 친환경 소재에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제작될 수 있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철원의 설명과 지도 아래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리해를 높였으며 직접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농후한 흥미를 키우고 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과 보호 의식도 강화했다.

앞으로 연길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룝색 책갈피에 조력하고 동심으로 석류씨 함께 키우기' 무형문화유산 학교 활성화 행사는 교내와 교외, 수업 내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방회, 전지, 자수 등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방과후 동아리 활동 및 도덕·예술 수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우수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들을 초청해 교내 지도를 진행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들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파기자

북경: 중소학교 '3대 구기 종목'중 최소 하나를 필수과목으로



시 생생 이미지

2월 17일, 북경시교육위원회와 북경시체육국이 공동으로 인쇄 발부한 <새시대 중소학교 체육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 즉 북경시 중소학교 '체육 8조'가 정식 발부되었다.

구기 종목' 학급 경기를 최소 1회 조직해야

◆ '3대 구기 종목'중 최소 하나를 체육수업의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고 병설운동을 보급해야

소학교와 중학교는 '3대 구기 종목'중 최소 하나를 체육수업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고 고중에서는 '3대 구기 종목' 모듈 교육을 개설해야 한다. 중소학생들이 병설운동 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조직하고 병설운동 특색학교는 병설 내용을 체육수업에 포함시켜 교육을 진행하며 시급 병설 종목 고수준 학생동아리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 소학교는 매 학기 최소 5회 학급 리그를 조직하되 고중 '3대

이 밖에 문건은 처음으로 북경 중소학교에 전원 참여, 전 과정 참여 '학급 경기'를 전면적으로 포지했다. 매 학기 학급 리그를 조직해야 하는데 소학교는 학급마다 5회 이상, 중학교는 4회 이상, 고중은 3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그중 최소 1회의 '3대 구기 종목' 학급 경기를 조직해야 한다. 축구, 룡구, 배구 특색학교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상응하는 '3대 구기 종목' 학급 리그를 개최해야 하며 각 학급은 매 학기 5경기 이상 참가해야 한다.

학교 또는 그룹 학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한차례 전원이 참여하는 체육축제와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시급 소학생 운동회의 개최 형식을 최적화하고 전 시 집중 개최를 같은 시간대에 각 학교에서 분산, 개최하도록 조정한다.

/ 인민넷

새 학기 빨리 적응하는 4 가지 '마음' 법칙

개학 초기에는 아이들이 새 학기의 학습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심리적 및 행동적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부모는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새 학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리해하고 도와야 한다. 구체적으로 네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안정적인 마음가짐'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둘째,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아이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회복하도록 돕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아이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매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학습 상태를 되찾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긍정적 마음'이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를 주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며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안심'이다. 아이들이 개학은 학습과 생활의 일부임을 리해하도록 인도하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으로 도전에 맞서도록 고무격려해야 한다.

또한 아이에게 감정 조절의 두가지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우선, 서면으로 하소연하는 방법이다. 매일의 울적함, 걱정, 곤경을 기록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 성공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과 아름다운 시절을 많이 회상하고 자신감과 내적 동력을 향상시킨다.

이 두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 인민넷



2월 16일, 중경시 유양투자자모족자치현실험소학교에서 학생들이 새 학기 교과서를 받아가고 있다. 이날 중국의 일부 지역 중소학교가 개학 시즌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받아가고 개학 첫 수업 등 활동에 참여하며 새 학기를 시작했다.

/ 신화사